

보도자료

2011년 10월 31일(월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위규진 과장(☎710-6500)
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이황재 연구관(☎710-6520)
rhee@kcc.go.kr

무궁화 3호 서비스 영역 확장

- 제19차 한·일 정부간 위성망 조정회의 -

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장(원장 임차식)은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린 「제19차 한·일 정부간 위성망 조정회의」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밝혔다.

무궁화 위성 등 현재 운용 중인 위성 및 아리랑 등 발사 예정인 위성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58개 의제에 걸쳐 주파수 이용 방안을 논의하였다.

무궁화 위성은 근접한 일본 위성과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통신 및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, 특히 무궁화 위성 서비스 영역을 일본 지역까지 확장하는데 협의를 완료하여 위성 서비스의 일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.

앞으로 발사예정인 아리랑 위성 3호는 일본 위성 간 전파 간섭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아리랑 위성의 안정적 운용 기반을 확보하였다.

이번회의에 우리나라는 국립전파연구원을 비롯하여 합참, 한국전자통신연구원, 한국항공우주연구원, KT, SKT 등에서 위성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.

국립전파연구원은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현재 운용중인 위성 및 발사예정인 위성의 안정적인 운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. 끝.